

“침체된 일본 내 한류 재점화 기회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도코서**
‘K-Story in Japan’ 행사
인기 웹툰 원작 드라마·영화
현지 50개 기업과 수출 상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은 9일 일본 도쿄 코리안센터에서 국내 우수 스토리의 일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K-Story in Japan’ 행사를 진행했다.

5회째를 맞는 ‘K-Story in Japan’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웹툰 등 국내 원전 스토리를 일본의 드라마·영화 제작사와 투자사 등에 소개하는 프로젝트 피칭 행사로, 피칭 후에는 현지 콘텐츠 기업과 판권 수출, 공동제작 등 사업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1:1 상담도 진행됐다.

올해는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웹툰 ‘목욕의 신’을 영화화한 작품 등이 일본 관계자들에게 소개됐다.

특히 ‘문화채’는 영화 ‘블라인드’의 한·중 합작 리메이크판 제작을 통해 1억 2000만 위안의 극장대출을 기록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내년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인 영화 ‘독고’,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드라마 ‘궁’을 집필한 박소의 작가의 신작 ‘공방의 미녀’, ‘태양의 후예’의 원작 스토리를 발굴한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에서 2014년



일본 도쿄 신주쿠문화센터에서 최근 열린 ‘드라마 오리지널 사운드 코리아 2016(DRAMA ORIGINAL SOUND KOREA 2016)’에서 가수 휘성이 노래하고 있다.

대상 수상한 ‘Go!’ 등 총 10개 작품이 일본 콘텐츠 관계자들에게 선보였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품 외에도 일본 시장에 적합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국내 우수 스토리들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장르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일본 콘텐츠산업 관계자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 NHK를 비롯해 ‘태양의 후예’의 일본 판

권을 구매할 NBC 유니버설 재팬, 세계 최대 규모의 광고 기업 덴츠 등 50여 개의 일본 주요 콘텐츠기업에서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했다. 이 외에도 많은 일본 콘텐츠 관련 기업들로부터 행사 참석 문의가 이어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창작기반팀 변미영 팀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스토리를 발굴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일본에서 정식 방영되기 전부터 많은 팬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K-스토리에 대한 일본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잠시 침체되었던 일본 내 한류가 재점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스토리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행사가 끝난 후에도 11일까지 일본에 체류하며 일본 4대 메이저 영화사 토호 그룹 스튜디오와 일본 최대 민영방송국 후지 TV를 방문하는 등 일본 진출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T “장성 농산물 비축기지 내년 완공”

농산물 수급안정·품질 보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장성에 저온 시설을 갖춘 연면적 1만704㎡의 규모와 된 농산물 비축기지를 건설한다.

그동안 aT는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고추, 마늘, 양파, 콩, 참깨, 배추, 무 등 주요 농산물의 수매, 수입 및 적기 방출을 통해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며, 비축기지는 이러한 비축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aT는 비축사업 운영효율화를 위해 2012년도에 KDI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40년 이상 노후화된 지방의 8개 비축기지를 대상으로 비축기지 현대화·광역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호남권 비축기지는 광주, 전남·북 지역의 물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장성에 부지를 마련하여 2015년 12월에 착공을 거쳐 오는 2017년 4월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최신 저온시설을 갖춘 장성비축기지가 완공되면 농산물 보관여건이 크게



장성 농산물 비축기지 조감도.

개선돼 이 지역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소규모 민간 임대 창고에 의존하여 온 비축사업의 보관관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추진한 전국 각 권역별(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부경권)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의 6만9000t 규모의 비축농산물 보관능력이 8만6000t으로 증가되고, 노후화된 비축기지 시설보완에 소요된 20억 가량의 연간 시설유지비도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태국 대학 연수단, aT센터 견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9일 “태국 북부 골든트라이앵글에 위치한 파야오(Phayao) 대학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 박사과정생, 기업인 등 52명이 지난 7일 aT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선진농업 인프라 및 농식품 산업 관련 aT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aT는 작년부터 ‘aBC’(agriculture Business Center)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연수단을 대상으로 한 aT센터 농업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KOICA, 한국 주재 개발도상국 대사관 등과 연계해 작년 한 해 동안 20여 팀의 aT센터 및 화훼공판장 등 농업시설 견학을 추진했다.

태국 대학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

해 한국의 농식품 산업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aT가 수행하고 있는 수출, 유통, 식품산업 지원 기능 등이 태국 농업정책에도 도입될 희망한다”라는 소감을 나타냈다.

김재수 aT 사장은 “농식품 수출 전문기관인 aT가 외국방문단과 연계하여 글로벌 민간외교를 펼침으로써 국가 간 농업 관련 상호협력은 물론 우호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T는 지난 2012년부터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국내 다문화가정의 외가·친정방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aT센터 내에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는 글로벌 문화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

한전KPS, 53개 업체와 해외진출 협력

한전KPS(사장 최외근)는 지난 8일 광주·전남혁신도시 본사 1층 빛가람홀에서 해양알로이, 록스텍 코리아, 리탈 코리아, 터보파워텍 등 국내 53개 공급망(Supply Chain) 협력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해외사업 Supply Chain 구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전KPS는 발전설비 기자재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ROMM/Retrofit 사업에 필요한 기기 제작사, 유통회사 등 국내외 파트너사 추가 확보하고 해외 동반진출 모델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공급망(Supply Chain) 업체별 기자재 전시(6월 8~10일)와 함께 Supply Chain 향후 운영 계획 발표,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에너지밸리 IT컨퍼런스’

한전KDN 14일 발표회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오는 14일 나주혁신도시에서 ‘빛가람 에너지밸리 IT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나주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광주·전남지역 IT관련업계 종사자와 대학생,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IT 관계자 등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IT컨퍼런스에는 국내외 IT분야 주요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최신 IT트렌드를 접목한 각 사별 제품을 전시하고, 글로벌 IT기술동향과 솔루션, 적용·구축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대규모 IT컨퍼런스를 접해보지 못한 지역 대학생들에게 값진 체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KDN은 행사를 통해 낙후된 지역 IT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

한전 “에너지밸리 중기에 계약 가산점 주겠다”

개성공단 등 협력업체 상생
하자보수 보증금 면제 확대

한국전력이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계약도를 대폭 개선했다.

한전은 9일 “광주·전남지역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등 하자보수 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부여가 신설됐다.

한전은 지역경제와 에너지밸리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체운영 기준인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가점 1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 4월 1일 입찰공고 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도 가점 3점을 부여한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 정도,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 감점 또는 가점하는 평가제도다. 감점은 최대 마이너스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신인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한전은 물품 구매시 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협력업체와 상생 기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 하자보

수 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자보수금 면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해서만 면제해 왔다.

한전은 분사 이전 이후 광주전남공동(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5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에너지밸리에 입주기로 협약(MOU)을 맺은 기업은 105개 기업에 달한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생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연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히 제10-1097784호
특히 제10-0562035호
특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내쁘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 시공전

외벽 패턴: 평면외벽, 기둥외벽, 창문외벽, 사선외벽, 벽면외벽, 옥외외벽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인터넷 배선서도 카탈로그도 다량하고 저렴한 가격에 배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